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 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JANUARY 2020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05

### 새해인사의 말씀

회장 손경택



Pandemic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지상으로나마 새해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해에 허리 수술을 받아 많은 고생을 하다가 여러분의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이제 70%는 원기 회복이 되었습니다. 비와 폭풍 후 더욱 청명한 날씨가 오듯 vaccine도 개발되었으니 봄이 올 때면 다들 모여 우정과 정담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원래 골든클럽은 1998년 여름 15명의 동문이 부정기적으로 모이던 golf 모임을 매달 정기적 모임으로 시작한 후 22년이 지난 지금 일취월장하여 현재는 주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 회장단의 우애와 노력의 기반 위에 이준행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원로회원님들, 중견회원, 신입회원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며 영광입니다.

특히 최근의 괄목할 만한 활동으로 on-line Internet cafe의 개설입니다. Cafe 지기를 자원하여 주신 김병순(상대82) 동문의 희생적 봉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적절하고 적시의 활동으로 보겠습니다. Off-line monthly newsletter보다도 월등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매체가 될 것입니다. Cyberspace는 최첨단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 이용하여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자랑스러운 일은 pandemic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결간 없이 Newsletter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조직이나 큰 조직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Newsletter 편집에 cyberspace 이용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터득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흥중만 부회장, 윤현남 편집장, 김정필 간사, 김병순 cafe지기, 오순문 감사, 주상선, 오성 편집위원, 그리고 적절한 때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는 정해민 고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Golden Club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동문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Newsletter에 광승용 회원의 기고문 중 lockdown의 by-product benefit으로 부부간의 정이 더욱 두터워진다고 설화 하셨습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살 수 없듯이 동문, 친구와 만나 trash talk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태내 모두 평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자랑스럽고 모범이 되는 골든클럽으로

명예회장 이준행(공대48)



회원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가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여의치 않은 저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우리 Club 행사에 참석을 게을리하게 되었음을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비록 행사에 직접 참여는 못 했지만 가까이 계신 회원들과 골든클럽 회보를 통해 늘 Golden Club 회원님들과 가까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임회하신 회원님들께 직접 만나 뵈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돌이켜 보면, 10여 년 전 제가 골든클럽 회장직을 인수받았을 때만 해도 50여 명의 회원으로 golf 위주로 클럽을 운영해 온 게 엇그제 같은데

[4면에서 계속]

## SNU Golden Club Cafe

골든클럽 카페 방문을 초대합니다. 현재 카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회원동정
- \* 행사안내
- \* 2010-2019년 추억의 골든클럽
- \* 카페 앨범
- \* 뉴스레터 (2018-2020)
- \* 정해민의 삼국지 연재
- \* 여주영 칼럼
- \* 이석구 칼럼
- \* 오 성 칼럼
- \* 강교숙 산책

누구나 카페를 방문하여 글과 사진을 볼 수 있으나, 카페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기려면 '회원가입/Log-in'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 계정' 또는 'Daum' ID/Password가 필요합니다. 새로 만든 카페에서 글을 읽는 것은 자유로우나 글쓰기나 다운로드를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Internet 주소창에 cafe.daum.net/snugoldenclub 을 type하고 엔터
2. 아래 그림 1에서 가입하기를 클릭



3. Kakao ID 혹은 Daum ID로 Login (만약 두 개의 ID가 모두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운영위원에게 연락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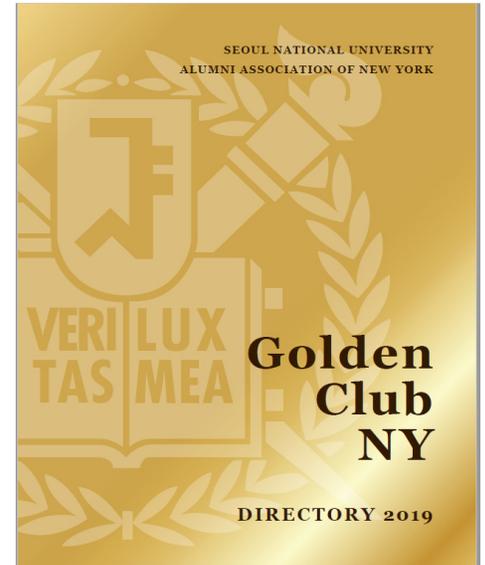
- 김정필,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김병순, (T) 703-407-4928,  
(E) kbs87417@gmail.com

## 2021년 행사를 준비하며

작년까지만 해도 Pizza party picnic에 70여 회원이 모여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버스를 대절하여 Catskill 계곡에서 송어회와 매운탕을 끓여 먹었고, Longwood Garden을 방문하여 Fountain event에 넋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보내지만, 다가오는 2021년에는 골프, 하이킹 등 야외행사에 주력하면서 vaccine의 도움을 받아 BBQ 피크닉, 단체 관람 및 실내 모임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골프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그리고 하이킹/피크닉도 매월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8면의 행사 일정을 참조 바랍니다.

또한 Hudson 강변 공원에서 여성회원들의 Picnic lunch를 봄, 가을에 걸쳐 2회 정도 주선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넘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꼭 마련해 보도록 애쓰겠습니다.

## 골든클럽 Directory update



2년마다 신규회원 입회, 타지역 이주 또는 사망으로 인한 회원들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운 인명록을 새해에 발간합니다. 2021년에는 기존 Full size directory(안내 책자)는 변동내역을 보완하고, Half size 인명록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산뜻하고 새로이 디자인된 회원록을 기대하셔도 될만합니다.

2019 안내 책자의 사진을 교체하기 원하는 회원과 신규 입회 회원의 사진들이 12월 20일로 확보되었고, 12월 중순부터 새 Directory의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1월 중 서울 체류 중인 손대홍 회원이 서울에서 인쇄하여 2021년 2월 중에 회원 여러분께 우송할 예정입니다.

2019년 Directory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인적사항 (이름 영문 표기, 주소 변경 등)을 정정해야 할 회원께서는 내용을 1월 10일까지 윤현남 회보 편집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윤현남  
(973)541-9970  
yoon.hyun.nam@gmail.com

## 회원동정

**오용호**(의대 66) 회원이 Englewood Cliffs 에서 Cliffside Park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새 주소: 100 Carlyle Dr, #7 CN  
Cliffside Park, NJ 07010

**이홍빈**(의대57) 회원이 Fort Lee, NJ 내에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새 주소: Atrium Palace 4-M  
1512 Palisades Avenue,  
Fort Lee, NJ 07024

**강미나** 씨 (이준희 음대95 부인)가 이준행 명예회장이 운영하시는 준이장학재단으로 부터 2020년 장학금 수요자에 선정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 플로리다의 잔상

김광현 (미대57)

초겨울이 되면 우리 New Yorker는 특히 Florida가 그리워집니다. 화가께서는 그림의 변으로, “플로리다에는 명확하게 나누어진 사계절이 없지만, 일상적으로 생각나고 보이는 것들을 모아서 표현했다.” 고 말해 주십니다. 겨울의 움츠림 훅훅 내던지고 떠나고 싶습니다.

## 감사의 말씀

이준희 (음대95)

안녕하세요. 저는 음대 95학번으로 골든클럽 회원 가운데 막내입니다.

서울대 성악과 졸업 후 음악 공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도전을 위해 아내와 다섯 살배기 어린 딸과 함께 2011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음악 공부를 위하여 한국에서 재정 준비를 많이 하고 왔지만, 모두에게 그렇듯 예상보다 높은 뉴욕의 물가는 수입 지출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유학 오신 선배님들은 저희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부부가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제가 음악 공부를 먼저 시작하여, 석사와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저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외동딸도 중학생이 되어 아내의 손이 덜 필요

하게 되면서, 아내(강미나)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접어 두었던 음악 공부에 대한 포부를 실현하고자 작년부터 오디션 준비를 하면서, 아내는 2020 가을학기 Mannes School of Music in New York에 피아노 석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예상치 못했던 Covid-19으로 학비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든클럽 회보를 통하여 이준행 회장님의 준이 장학재단을 알게 되었고, 장학금 수여자로 선정되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너그럽게 적용해 주신 준이 장학재단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받은 장학금의 혜택이, 나아가 이준행 회장님의 귀한 뜻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도 언젠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후원의 손길을 펼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배운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서울대 동문으로서 한인사회에도 더욱더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골든클럽 선배님들, 동문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 카페 개설과 신년 축하

임호순(공대52)

골든클럽 카페 개설을 축하합니다. 며칠 전 어떤 TV Channel 인지 기억은 못 하지만 News 시간에 Ctrl+Z 2020 이라는 화면이 크게 잠깐 떴다 사라지는 것을 보며 웃음과 놀라움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면 2020년을 지워버리고 싶은 심경일까 생각하며 많은 사람이 동감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골든클럽도 지난 한 해 동안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는 힘든 현실을 지나면서도 골든클럽 카페 개설의 놀라운 소식과 골든클럽의 중요 행사의 하나인 컴퓨터 교실의 양인회 강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따라 Zoom Video를 통한 화상교육을 진행하면서 더욱 활발히 발전되고 있음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동안 골든클럽의 많은 소식을 회보를 통해서 또는 양인회 동문이 운영하는 “뉴욕에서 만나요”라는 Daum 카페에서 접해 왔으나, 이번 골든클럽 운영진에서 활발해지는 골든클럽 활동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독자적인 카페 개설을 하였음을 놀라움과 함께 운영진에게 축하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 골든클럽 발족 당시 회원과의 통신수단은 일반 편지와 유선 통화로서 교신하는 그야말로 옛날이야기 같은 analog 시기였으며, 약 10년 전 빠르게 발전되어가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골든클럽의 임원진과 조직개편을 새롭게 하고 골든클럽 회보 발행과 internet을 통한 online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골든클럽의 1세대에서 새로운 2세대로 발전되어 감을 체험하였습니다. 새로운 2세대의 골든클럽은 지난 10여 년 클럽 행사의 다변화와 운영조직 정비 등과 함께 많은 새로운 회원의 참여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Corona Virus로 인한 힘든 역경과 정보계통 기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변동과 새로운 사회 질서 속에서 골든클럽의 카페 신설과 많은 새로운 회원의 운영진 참여로 발전을 이루며 골든클럽이 이제는 3세대로 변환을 진행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지난 2020년 지워버렸으면 좋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에도 골든클럽을 계속 운용 발전 시켜 나가는 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의 결과로 오늘의 골든클럽이 있음을 경하드리며 유순하고 인내심이 강한 소의 해를 맞이하여 소처럼 힘이 솟아나서 Corona 시대를 이겨 나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원 가족 여러분의 건안 하심을 축원 드립니다.

## 신축년 인사

김영덕 (공대53)

2021 신축년을 맞이하며 골든클럽 동문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으로 정말 인류가 근세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골든클럽 동문들 (정인식, 윤정옥, 한경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무엇으로 달래겠습니까? 다행히 2020 연말부터 백신이 나와 2021년 가을이면 정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으니 금년은 분명히 희망의 해입니다. 신축년 소띠의 해를 황소와 같이 끈기와 성실, 인내심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람 있는 해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면 이준행에서 계속]

지금은 100명이 넘는 회원이 golf뿐 아니라 computer, 등산, 여타 여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클럽이 되었음은 서울대 동창회뿐만 아니라 범 교포 사회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임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특정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 여러분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회원들이 단합해서 협조하고 후원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클럽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자랑스러운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Golden Club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우리 클럽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훌륭한 세계적인 상부상조하는 협조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훌륭한 기회를 배려해주신 골든클럽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새해에는 회원님들 가정에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정해민(골든클럽 상임고문)

1. 2020년에 대한 소감: 한마디로 끔찍한 한 해였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1월 말경에 낙상으로 인한 허벅지 골절로 수술, 입원, Rehab에 수용되어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 19의 파도가 닥쳐와서 급히 퇴소한 후 약 6개월간의 자가 치료를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겪은 기억이 새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인이 다 같이 겪은 고통과 불편, 또 많은 이들이 희생된 것에 나는 자동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덕에 위험에 노출될 기회를 자동 박탈당한 격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보행에 거의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뉴스레터 편집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매주 월요일에 하는 컴퓨터 공부도 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 카페에 글과 작품을 올리면서 무려 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 그 이외에도 동창회의 맡은 의무도 제약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



2. 2021년의 기대와 소망: 뉴스레터에 게재할 원고의 저변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해 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1) 뉴스레터 편집위원 이외에 논설위원과 자문위원을 각기 2-3명 위촉한다.

2) 정기적으로(분기별) 특정 Subject를 정하여 간담회를 열어 이를 정리하여 게재한다. 물론 주제에 맞는 간담회 참석자를 미리 선정하고 주제를 주도해 한다. (예: 의료관계, 법률관계 등)

3) 1년에 한 번 전 회원(가능하면 동창회원까지 확대)을 대상으로 글(수필, 생활 수기, 시 등)을 공개 응모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게재한다.

"해는 내일도 뜬다(Sun also rise tomorrow!)"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창회원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대망의 새해가 올 것입니다. 2021년은 COVIC PANDEMIC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활동과 일상이 정상화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새해 인사와 기대

최수용 (상대55)

골든 클럽 회보가 생긴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05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건강상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회보를 통해 소식을 알았고, 여러분을 만난 듯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는 회보에 개인 탐방란을 만들어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나 사는 모습을 전할 수 있으면 어떨런지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보람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2021년을 기대하며 뉴스레터 편집팀

Wheelchair를 타다, 네 발 달린 walker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다, 지팡이에 의지하다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며칠 전부터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묻은 골프채를 꺼내어 거실에 가져다 놓고 만지작거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골프장에서 골프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손경택 (농대57)

한국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사람들 간의 생각 차이가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을 봅니다. 보수적 성향의 사람과 진보적 성향의 사람 간의 생각 차이, 세대 간의 생각 차이 등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이 다를 뿐임을 서로 인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순응하는 성숙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순(사회대82)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은 인생의 소금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보듯이 말과 행동에 앞서 먼저 생각해 보며,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건네는 말 속에 진정성이 담기는 훈훈한 인간 관계가 형성되도록 나 자신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종만(공대64)

2021년 후반이면 pandemic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 때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pandemic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게되면 좋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잃어버린 것도 방대한 이 pandemic을 지내고 나면 우리 사회가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으면 하는 기원입니다.

윤현남(공대64)

## 편집 주:

1월호 회보는 pdf file로 Golden Club Cafe/뉴스레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면의 "오솔길"과 7면의 "한국의 세밀 풍경"은 저자들이 보내준 원고를 편집팀이 회보에 맞도록 만든 수정본입니다. 원본도 Café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오솔길

강교숙(간호73)

유수 같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새 달력을 마주하게 되었다. 예전엔 연말연시에 의례 카드나 연하장과 함께 선물하는 것 중에 빠질 수 없던 품목이 달력이었는데 수요자가 줄어 이젠 달력을 만드는 단체나 회사가 소량만 제작하는 것 같다. 밤마다 벽에 걸어 놓곤 하던 추억의 물건이 되었나 보다. 그래도 가끔 달력을 부탁하는 친지가 있어 달력이 생기는 대로 모아둔다.



(!)을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아침 식사 후에 돌아서면 점심시간이 오고, 돌아서면 저녁 시간이 돌아와서 식사 준비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잘하지 못하는 음식 솜씨를 발휘해야만(?) 했다. 집에 머무는 관계로 일어나 외출로 적당히 때우는 것에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면 표시나지 않고, 안 하면 표시 나는 집안일에 나도 모르게 달인(!)의 경지에 이를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 폰의 출현으로 간편한 달력을 소유하게 되니 계획, 약속 등도 스마트 폰의 달력에 입력하고 달력 위에 적던 메모도 핸드 폰에 입력하면 그만인 세상이다. 메모지에 약속을 적어 놓고 메모지를 잃어버린 적도 있어 당황하던 일도 있고 스마트 폰 달력에 입력시켰는데도 두 번이나 치과를 결석한 적도 있다. 그만 소리를 줄여 놓고 bag에 넣은 채 전화를 들여다보지 못한 나의 실수였다. 이제는 alarm을 해놓고 약속 시각을 기억하고 있다.

2020년 한 해는 Covid-19로 너무도 힘든 한 해였고, 2021년도 불투명한 전망이언제나 투명해질지 미지수이다. 변화하고 있던 세상이 더욱더 급변하여 겪어보지 못하던 상황에 당황하고, 적응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며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삶의 오솔길을 돌아 나가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무심히 지나치던 작은 구석구석에 소중한 삶의 모습이 말없이 우리 곁에 머물렀던 것에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무엇이 그리도 분주한지 식사도 적당히 간단히 때우기를 수도 없이 하다가, 삼시 세끼를 거의 꼬박꼬박 그때그때 준비하며 마주 앉아 들며 여유롭기 그지 없는 클래식 음악 속에 천천히 들어보니 맛이 꿀맛이었다. 그런데 나의 미국 이민 생활을 통틀어 이 코로나 기간만큼 솔뚜껍 운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책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힘은 대단하다. 살아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충전해준다. 물론 운동도 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힘을 안겨준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놓치고 있던 조그마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고마워하며 복잡하던 마음의 평정을 찾아 산책도 하며 새소리를 들으며 걸어가며 떨어진 낙엽 밟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았다. 나의 발걸음은 내 생각을 자유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곤 한다. 얽혀 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후련함이 시간의 흐름을 잠시 잊게 한다.

삶의 터널을 지나는 어려운 시간.

삶의 오솔길에서 만나는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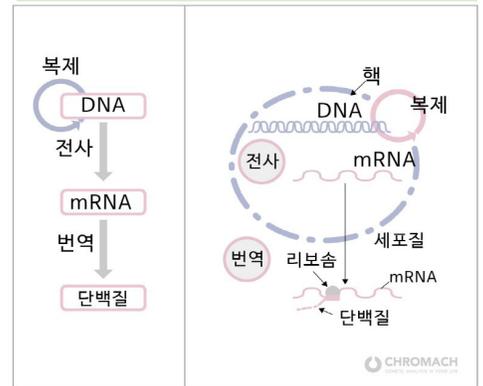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넓은 품 안과  
풍성한 변화와 다양한 색깔과 소리는  
우리에게 따스하게

때로는 장엄함으로 다가오고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며 삶의 이치를  
깨우쳐 주고 있다.

## Pfizer와 Moderna의 백신 제조방법 : mRNA법

영국의사 Edward Jenner는 1796년 천연두에 감염된 젖소의 고름에서 독성이 약해진 우두를 채취해 천연두 백신을 만들었다. 그 후 유인원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을 이용하거나 채취한 병균들을 배양하는 방법이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백신들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COVID 19에서 Pfizer와 Moderna가 사용했던 mRNA (messenger RNA, 세포에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를 주사하는 방법은 신속성과 유효성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서도 확장성이 있어 보인다.



Corona virus로부터 만들어진 mRNA(인간의 세포에 spike 단백질을 만들라는 설계와 지시를 전달)를 인체에 주사하면 사람 세포 안에서 spike 단백질(Corona virus의 돌기부분으로 사람의 세포에 먼저 달라붙어 빨판 역할을 한다.)을 만들면서 몸속에 항체가 형성된다. 일반 백신들은 spike 단백질과 허약한 몸체를 가진 망가진 바이러스를 주사해 항체를 만드는데 비해, mRNA 방법은 인체 세포에서 spike단백질만을(몸체가 없이 돌기만 있는) 만들어 항체를 얻는 방법이다. 만약 Corona virus를 문어에 비유한다면 기존 백신 제조방법은 허약하고 독성이 약해진 문어를 주사해서 항체를 얻는 방식이고, mRNA방법은 빨판 역할을 하는 문어 다리만으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virus로 인한 독성이 아예 없고, 백신을 만든 후에도 독성측정에 필요한 십여년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가 있다.

오순문(사대68)

## 한국의 세밑 풍경

손대홍 (미대 79)

근래에는 ‘세모(歲暮)’ 대신 ‘세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말을 한 글자라도 더 쓰자고 한자로 한 해를 뜻하는 ‘세(歲)’에 아래를 뜻하는 ‘밑’을 조합한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살던 때만 해도, 세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해가 지난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도 크리스마스와 같이 오는 백화점의 화려한 장식과 거리와 방송에서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족들의 선물도 준비하며 세모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설날과 새해를 떠올리며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위한 각오도 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가 의미 있는 시간이고 맨해튼의 크리스마스와 New Year를 맞는 분위기가 워낙 화려해서인지 한국에 살던 시절보다도 연말을 맞는 마음은 좀 더 감성적으로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함과 분주한 미국의 연말 분위기 속에 서도 왠지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세모, 세밑 풍경이 그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세모를 상징하는 것은 단연코 송년회(送年會), 망년회(忘年會)입니다. 지금은 송년 모임이라는 말을 권장합니다. 직장인들은 부서모임, 동기모임, 회사 전체 모임, 그리고 같은 동문끼리의 모임, 출신 지역 사람들의 모임 등, 저의 경험으로는 회사 내에서의 송년 모임만 해도 줄잡아 5~6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고교동문, 대학동문, 동호회, 친구들 모임, 제가 사업할 때는 거래선들과의 모임 등, 12월이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달 내내 송년 모임이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처방약을 사던 시절에는 오죽하면 한국의 약국은 일 년 장사의 반은 연말에 한다는 말도 있었을 만큼 한국의 세밑 풍경은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술 마시고 길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큰 소리로 노래까지도 사양 않던 그 시절이 제게는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세밑 기억이자 풍경입니다.

그다음 기억나는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려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렸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가족과의 파티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그리고 교회 행사 등,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들과 밤새 어울려 놀던 기억, 스키장의 설원 속에서 보냈던 White Christmas 등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도 세밑의 풍경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 해를 보내는 세밑에 대한 추억은 다양하고 화려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을 서울에서 보내고 있는 지금은 제가 기억하고 알던 세밑의 풍경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태어난 이후로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아예 새로운 세밑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천명을 넘자 정부의 2.5 방역단계에 들어서더니, 3단계는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머뭇거리던 정부가

결국은 2.5~3단계의 조치로 23일부터는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어떤 모임이든 식사이든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가족도 5인이 함께 식사하지 못하느냐, 여행을 가서 호텔 객실에도 가족 5명이 함께 모일 수가 없냐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가족 모임의 경우도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되지 않아, 예를 들면 좌석을 나누어 4인 이하로 앉아야 하는데, 그나마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하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11월 말부터 시작된 선행조치로 모든 식당의 영업은 밤 9시까지이며 카페는 take-out만 허용되고 모든 체육 시설, 사우나, 노래방, PC방 등은 영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색다른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지를 둔 사람은 국내 어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도 5인 이상이 모일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 가지 않지만 현재 한국은 그렇습니다.



우습지만 웃을 수도 없는 농담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24일의 이브에서 25일 새벽 사이에 받지만, 금년에는 1월 7일에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자가격리 14일을 지켜야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연말 특수는 아예 기대하지도 않지만, 식당들은 한 달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시장통의 가게들은 아예 손님

이 없는 날도 있다며 암울한 연말을 호소하지만 당장 뚜렷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백신 확보가 늦었다며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하철도 한산하고 평소 같으면 밀렸을 고속도로와 강남 시내도 비교적 차량 통행이 수월한 편입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져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 가까이 오면 항상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다 취소가 되었고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는 모임조차도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캐롤도 저작권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탓으로 틀지 않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 백화점이나 호텔의 화려한 디스플레이 장식도 볼 수 없고 크리스마스나 새해에 가족, 친지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사람들도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구정 명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정을 쇠는 많은 사람들도 가족들은 모이지 않기로 한 집들이 많다고 하니 이제 가족이 함께 모여 만두를 빚고 떡국을 먹는 일도 그저 추억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송년 모임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동창회 이건 회사 모임이든 가족 모임이든 당분간은 어려운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지 않고 교회의 성탄 예배와 성당의 성탄 미사도 열리지 않고, 동창회나 회사, 가족 간의 송년 모임도 열리지 않는 연말입니다. 밤 9시만 넘으면 길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힘 없고 축 처진 그런 서울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을 그런 한국의 세밑 풍경입니다.

**회원 명단 (108명 / 2020-12-17)**

강교수	김영덕	손갑수	유무영	임호순	최진영
강에드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장동만/	최철용
강영선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고애자	최재욱
계동휘	김익성	남종현	이국진	정도현	한영수
곽상준	김인형	손옥화	이 준	정수일	한용오
곽선섭	김재경	송근숙	이대연	조달훈/	한태진
곽승용	김정필	송웅길/	이대영	조승자	허용웅
구달회	김종율	송현자	이범선	정해민	홍사만
권영대	김창수	송학린	이수호	조상근	홍정표
권정덕/	김태일	신응남	이용대	주상선	홍지복
홍선경	김현중	신진식/	이전구	주재양	홍예경
권태전	노용면	이정자	이정필	진봉일	
김광수	민준기	양인회	이종대	천병수/	
김광현	박기환	오 성	이종석	천중화	
김동건	박준구/	오순문	이준행	최구진	
김문경	최속희	오용호	이준희	최우용	
김문언	박희병	오유섭	이행순	최수용	
김병순	배상규	오인석	이홍빈	최순채	
김상만	성기로	유규환	임도혁	최준희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Updated: 2020-12-12)**

1월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4월	4월 14일(수)	Hiking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5월	5월 12일(수)	Hiking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6월 23일(수)	Picnic or Pizza Party
7월	7월 8일(목)	Golf Outing
	7월 21일(수)	Hiking or 박물관, 식물원, 유적지 방문
8월	8월 5일(목)	Golf Outing
	8월 18일(수)	BBQ Outing
9월	9월 9일(목)	Golf Outing
	9월 21일(수)	Hiking
10월	10월 6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0월 20일(수)	Hiking or Picnic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2020년 연회비 납부 명단 (99명 / \$9,900 / 2020-12-17)**

강에드	김영만	손경택	유규환	이행순	최순채
강교수	김우영	손대홍	유무영	이홍빈	최준희
계동휘	김익성	손옥화	윤현남	임도혁	최진영
곽상준	김인형	송근숙	이강홍	임호순	최철용
곽선섭	김재경	송웅길	이국진	장동만/	최학주
곽승용	김정필	송현자	이범선	고애자	한영수
구달회	김종율	송학린	이대연	정도현	한용오
권영대	김창수	신원철	이대영	정수일	한태진
권정덕	김태일	신응남	이수호	정해민	허용웅
권태전	김현중	신진식/	이용대	조달훈/	홍사만
김광현	노용면	이정자	이전구	조승자	홍정표
김동건	민준기	양인회	이정필	조상근	홍종만/
김문경	박기환	오 성	이종대	주상선	홍예경
김문언	박희병	오순문	이종석	주재양	홍지복
김병순	배상규	오용호	이 준	진봉일	
김상만	성기로	오유섭	이준행	천병수	
김영덕	손갑수	오인석	이준희	최병우	

**2020년 후원금 납부 명단 (20명 / \$7,400 / 2020-12-17)**

곽선섭 100	김종율 200	윤현남 500	임호순 300
곽승용 200	성기로 300	이강홍 300	정해민 500
권정덕 200	손경택 1,000	이전구 500	조상근 300
김광현 100	송학린 500	이준행 1,000	최철용 300
김동건 200	유규환 2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16명 / \$1,600 / 2020-12-17)**

김상만	송학린	양인회	정수일	최철용	홍지복
박준구/	신진식/	유무영	정해민	한용오	
최속희	이정자	임호순	천중화	홍선경	

**2021년 후원금 납부 명단 (6명 / \$2,700 / 2020-12-17)**

송학린 1,100	양인회 200	정해민 500
신진식 300	임호순 300	최철용 300

**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교수 (간호73)
- 강영선 (공대50)
- 곽선섭 (공대61)
- 권태전 (사대54)
- 김광수 (공대72)
- 김종율 (사대51)
- 손경택 (농대57)
- 이전구 (농대60)
- 장동만 (문리55)
- 정도현 (공대57)
- 조승자 (가족)
- 한용오 (대학원)
- 홍사만 (문리61)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공적집회가 허용될때까지는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261A 4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T) 646-342-2667 (E) hong1945@gmail.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 입회비 \$200
- 연회비 \$100
- 후원금 (\$) \_\_\_\_\_ )

주소 (Home): \_\_\_\_\_